

담당부서 : 전략산업과

담당자 : 손창환 주무관

연락처 : 055-211-3133

성동조선 재가동으로 중소조선소 도약 신호탄 기대

- HSG중공업, 인수잔금 1,800억 원 납부, 4월1일부터 성동조선 재가동
- 경남도, 중소형 조선소 야드 경쟁력 향상 위해 스마트화 적극 지원

HSG중공업(주)이 지난 24일 성동조선해양 인수 계약 잔금 1,800억 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31일 관계인 집회를 거쳐 성동조선해양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성동조선해양은 18년 4월에 법원 회생절차 개시에 들어간 이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근로자 500여 명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세 차례의 매각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HSG중공업과 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매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해 12월 본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성동조선의 성공적인 매각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는 김경수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남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 창원지방법원과 수출입은행 등을 방문하여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등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아 왔다.

경상남도는 이번 성동조선해양의 재가동이 STX조선해양과 함께 중형조선소가 다시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중소형 조선소 야드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야드가 스마트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수주활동을 위해 국내외 마케팅 지원 강화,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와 생산전문 인력양성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재가동이 될 때 까지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

게 감사드립니다. 여러 난관을 이겨내고 회생한 성동조선은 코로나19 위기를 견뎌내고 있는 경남경제에 큰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남의 조선산업과 함께 지역 경제가 다시 힘찬 봄을 맞을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략산업과 손창환 주무관(055-211-3133)에게 연락바랍니다.